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2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침묵과 무소유의 달
2. 법정 스님 편지
 어제 그믐날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보다 자기다운 출가 정신 2
4.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하물며 잊었겠는가?
5.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눈 온 날 아침
6.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12월 1일 발행, 통권 346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침묵과 무소유의 달

자연의 신비에 싸여 지혜롭게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그들 둘레에 있는 풍경의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하여 그 달의 명칭을 정했다. 그들은 외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면을 응시하는 눈을 잃지 않았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산길을 터벅터벅 걷노라면 12월이 침묵과 무소유의 달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 한동안 지녔던 잎과 열매들을 말끔히 떨쳐 버리고,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알몸으로 의연히 서 있는 나무들은 침묵과 무소유의 의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남은 것은 피곤뿐인데, 나무들과 함께 있으면 잔잔한 기쁨과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낀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영적인 충만감에 젖어 있는 식물들의 심미적 진동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물은 우주에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는 생명체다.

그것들은 동물인 인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끝없이 발산해 주고 있다. 숲의 신비를 터득하고 살았던 인디언들은 기운이 달리면 숲으로 들어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소나무에 등을 기대어 그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캄캄캄캄 놀랐던 사건과 사고로 잇따른 씁쓸하고 우울한 기억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세월이 그렇게 엮인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안 보이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를 공초의 세계라고 한다. 있는 것은 없는 것에 의해서 유지 존속되고, 앞과 뒤는 서로 뒤따르면서 이어 간다. 밝은 대낮은 어두운 밤이 그 배후에서 받쳐 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한 밤은 낮이 없으면 그 장막을 펼칠 수 없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요 음양의 조화다.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 동작은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나중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주에서 영원히 진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어두운 생각 속에 갇혀서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지고 밝은 생각을 지니게 되면 그 삶에 환한 햇살이 퍼진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날날이 그 예를 들출 것도 없이, 캄캄캄캄 놀랄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잇따라 일어나는 바람에 서민들의 심장은 그야말로 콩알만 해졌을 것이다. 또 어디서 무슨 사고나 사건이 터지지 않을지 노상 불안한 마음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도 있듯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위는 씨가 되고 업이 되어 그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인과 관계의 고리다. 현 정부에서는 전에 없이 이른바 ‘캄캄 쇼’를 즐겨 연출하기 때문에 캄캄캄캄 놀랄 일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통치자의 고유 권한에 참견할 바는 아니로되, 우리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기쁨과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한 국민의 처지에서 진언이 허락된다면, 앞으로는 ‘캄캄 쇼’라는 말이 최고 통치권자의 주변에서 사

라졌으면 한다. 무고한 국민에게 더 이상 충격을 주지 말았으면 한다. 그 어떤 아름다운 문구를 쓴다 할지라도 말은, 특히 정치적인 말은 한낱 껌데기일 뿐이다. 진실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존재의 바탕인 침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성당에 가서 한 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신부가 다가가서 물었다.

“선생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시다.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분 역시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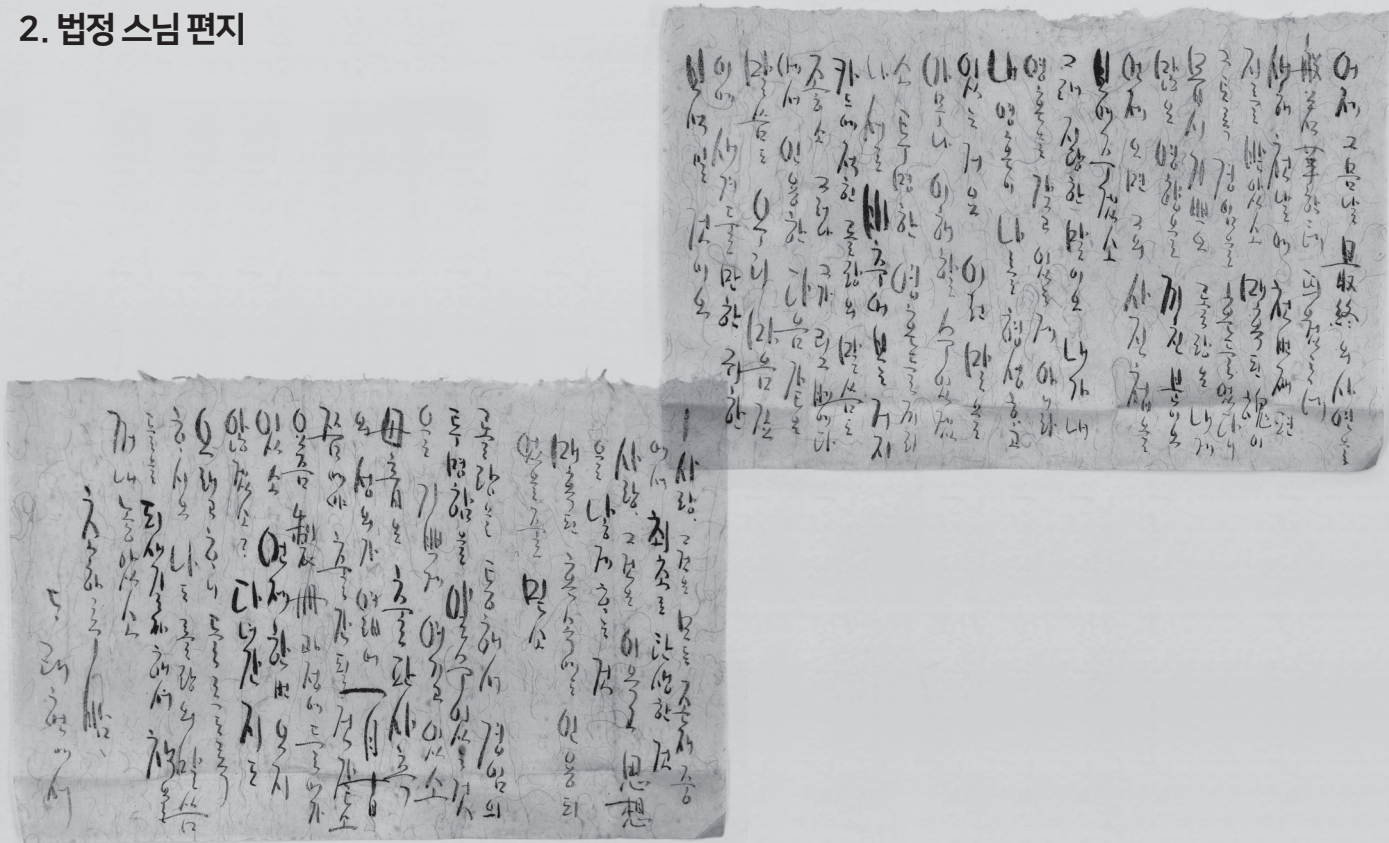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영혼의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할 뿐이다. 기독교식의 말, 불교식의 말, 힌두교식의 말, 회교식의 말 등등.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원초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다.

한 해를 청산하는 이 침묵과 무소유의 달에 종파적인 신앙을 떠나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올렸으면 한다. 우리 곁에서 온갖 재앙이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1994

2. 법정 스님 편지



어제 그믐날 最終의 사연을 般若華한테 띄웠는데 새해 첫날에 첫 번째 편지를 받았소. 매혹된 魂이 그토록 경임을 흔들었다니 몹시 기쁘오.

롤랑은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오. 언제 오면 그의 사진첩을 보여 주겠소.

그래 지당한 말이오. 내가 내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요. 이런 말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겠소. 투명한 영혼들끼리나 서로 비추어 보는 거지.

카드에 적힌 롤랑의 말씀도 좋소. 그러나 그가 리그베 에다에서 인용한 다음 같은 말씀도 우리 마음 깊이에 새겨 둘 만한 귀한 보석일 것이오.

사랑. 그것은 모든 존재 중에서 최초로 탄생한 것.

사랑. 그것은 이욕고 思想을 낳게 하는 것.

매혹된 혼 속에는 인용되었을 줄 민소. 롤랑을 통해서 경임의 투명함을 알 수 있을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소. 母音은 출판사 측의 성의가 얇어 一月十日쯤에야 출간 될 것 같소. 요즘 製冊 과정에 들어가 있소. 언제 한번 오지 않겠소?

다녀간 지도 오래고 하니 들르도록 하시오. 나도 롤랑의 말씀들을 되새길까 해서 책을 꺼내 놓았소.

초하룻밤 다래현에서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보다 자기다운 출가 정신 2

이 글은 2004년 12월 10일 법정 스님이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도를 이루어서 80세에 죽기까지 45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화를 합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은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45년 동안 횡설수설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겨요. 이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후세 제자들이 부처님이 하는 말에 너무 얽매일까 봐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장 바른 신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를 믿되 부처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각자 부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각자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다운 인격자가 되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 문화 강좌니 무슨 경전반이니 듣지요. 안 듣는 소리 듣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 일상생활에 용해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급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무익한 거예요.

조선 시대 청매 선사의 <십무익송(十無益頌)>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심불반조(心不返照) 간경무익(看經無益)”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봄이 없다

면 경을 읽어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좋은 설법 듣고, 경전 배우고, 문화 강좌 듣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용해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기원정사라는 아주 궁벽한 곳에 들어가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당시 불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불교가 한참 번창해서 활동하는 무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종파에서 시샘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를 하나 매수해서 해가 질 무렵에 기원정사로 들여보내고 아침에 나오도록 연출을 해요. 배가 불룩하게 보이도록 해요. 한 이교도가 고타마가 번지르르 거창한 소리를 하는데 사생활은 형편없다고 비난을 해요. 처녀에게 어린애를 잉태시켰다고 면박을 줘요. 그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해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히니까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합니다.

남 이야기 더러 하잖아요. 나 자신이 순간순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남의 일을 걱정합니다.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 하면 남이 또 나를 헐뜯어요. 메아리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남 홍보고 그러는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다행히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TV도 안 보고 가끔 일기 예보 듣기 위해 라디오만 틀고 하는데 그것도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또 신문 같은 거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괜히 안방에까지 싸움하는 걸 불러들일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불필요한 거, 내 본질적인 삶이 아니면 그때 그때 가지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여

건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본질적인 데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정보 사회라는 게 뭘니까? 지금 너무 넘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스모그란 말이 있어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의 노예가 돼요. 살아가는 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내 삶이 소홀해져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챙겨야 돼요. 식자우환(識字憂患), 아는 게 병이에요. 그게 업입니다. 신문 방송에서 좋은 뉴스를 전하면 좋지만 살인, 강도 등 아주 끔찍한 뉴스를 자꾸 전하잖아요. 우리가 활자 매체나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하는 그게 업이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필름이 찍혀요. 내 마음이 그만큼씩 어두워지는 겁니다. 업이라는 게 뭘니까? 내가 하는 말, 실제적인 행동, 생각, 이게 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는 거절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다 보면 내 속뜰이 어지러워져요.

신문사 기자인데 아침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친견하고 출근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기 정화를 위해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꼭 절에 나오고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주어진 24시간 중 진짜 순수하게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단 10분이건 30분이건 갖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아무개 부모 아무개 배우자가 아니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40대 50대라 하더라도 남성들이 모성 앞에 반쯤 기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화를 벌컥벌컥 내도 모성의 부드러움이나 푸근함 앞에서는 꺾입니다. 엄마들은 위기 앞에서 뚝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애간장 속 다 문드러질 정도로

겪었잖아요. 모성은 그런 저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저력이 발휘돼요. 따라서 가정의 중심은 엄마가 돼야 해요. 문제 가정은 엄마가 가정의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밖으로 나돌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텅 비는 거죠. 집은 번듯한데 그런 온도가 없는 가옥만 남은 집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썰렁한 집들은 엄마들이 다시 푸근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려면 엄마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불경기라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잘 살았어요. 20년 30년 전에 연탄 몇 장 들여놓고도, 쌀을 몇 되 지니고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금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때처럼 살뜰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가 미국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사이클에 중독이 돼서 무엇을 가지고서도 고마워하거나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나라도 다 인간답게 살아요. 눈망울을 보면 훨씬 맑아요. 똑같은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어떤 집안은 화목해서 잘 살고 남의 몇 곱을 가지고도 그냥 불화하고 서로 재산 싸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할을 엄마들이 해야 돼. 탐구하면서 조용히 안으로 모성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 얘기로 돌아갑시다. 당시 좋은 수행자들도 많았지만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섯 비구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한 6비구들을 위해서 비구계가 형성이 돼요. 그 전에는 규제하는 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직하고 떳떳하고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제구실을 했기 때문이지요. 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니 하나하나 계가 생겨요. 그

러니까 대승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수행자들을 위해 6비구가 그런 연출을 해서 그런 계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계는 일상생활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자기 생활 규범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그런 울타리가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극단적 비유, 즉 전혀 손에 물질을 쥐어서는 안 된다, 지붕 밑에서 자서는 안 되고 꼭 나무 밑이나 동굴 같은 데서 자야 된다, 이런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한테 허락해 달라고 할 때 부처님은 아니다, 지금 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재 몇몇의 대중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래의 많은 수행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미래 중생을 위해 그렇게 극단적인 계율을 만들지 않았습시다.

부처님이 죽기 전에 누구 집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계 탈 나서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간단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요. 고정불변한 건 없습니다. 한때 지녔던 모진 마음도 언젠가는 풀리게 마련이에요. 내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사회 현상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래요.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되거나 좋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끝)

4.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하물며 잊었겠는가?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일체지를 구하고,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구하고,
부처님의 변재를 구했다.
부처님의 광명을 구하고,
부처님의 육신을 구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구하고,
부처님의 모인 대중을 구했다.
부처님의 국토를 구하고,
부처님의 위의를 구하고,
부처님의 수명을 구했다.
이런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금강과 같이 견고해
그 어떤 번뇌로도 깨뜨릴 수 없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낸 이래
염부제의 미진수겁을 지내도록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을 낸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행했겠는가.
그런 겁 중에 내 친족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이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켰겠는가.
또 그런 겁 중에 나의 몸에도
'나'라는 소견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물건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냈겠는가.
그런 겁 중에 죽을 때, 태어날 때,
태에 있을 때 미혹해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기억이 없는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때 그리했겠는가.
그런 겁 중에 꿈속에서 뵈온
한 부처님도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보살의 열 가지 눈으로
본 것을 잊었겠는가.

그런 겁 중에 받아 지닌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고
세속의 말까지도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잊었겠는가.
그런 겁 중에 받아 지닌 여래의 법 바다에서
한 글자 한 구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고
관찰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세속의 법도 또한 그러했다.
그런 겁 중에 부처의 바다를 보고
한 부처님에게서도 청정한 서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여러 화신불에게서도 또한 그러했느니라.
그런 겁 중에 여러 보살들이
미묘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또 염부제의 미진수겁을 지내도록

내가 만난 중생 가운데서
단 한 중생에게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한 중생에게라도 성문聲聞이나 벽지불辟支佛의 뜻을
발하도록 권한 일은 없었다.
그런 겁 중에 모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구절에도 의혹을 내지 않았고,
두 생각을 내지 않았으며,
분별하는 생각, 갖가지 생각,
집착하는 생각, 우열을 가리는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았다.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항상 부처님을 보고 보살을 보고
진실한 선지식을 보았다.
항상 부처님의 서원을 듣고,
보살의 행을 듣고,
보살의 바라밀문을 듣고,
보살지菩薩地의 지혜 광명문을 듣고,
보살의 무진장문을 들었다.
항상 끝없는 세계의 그물에 들어가는 문을 듣고,
끝없는 중생계를 내는 원인의 문을 들었다.
항상 청정한 지혜 광명으로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지혜로 중생의 선근을 성장케 하고,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고,
항상 청정하고 훌륭한 말로써
법계의 중생을 깨닫게 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눈 온 날 아침

곱게 빵은

하얀 설탕 가루

설탕만 가득 찬 세상이라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 달구나

곱게 빵은

하얀 소금 가루

소금만 가득 찬 세상이라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 짜구나

내 안에서

자꾸자꾸

하얀 웃음 가루 쏟아지는

눈 온 날 아침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기부금 코드 41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자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024년 1월 7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 주셔야 가능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 나의 후원 > 중앙 모임 로그인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중앙 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 시 작성하신 이름과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를

입력 후 인증받아 후원 내역,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 전화 02)741-4696,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가 확인하여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6.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후원 회원 2024년도 탁상 달력 발송 안내**
 중앙 모임에서는 올해 1월~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 탁상 달력을 12월 초 발송 해드립니다.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었지만, 11월에서 12월말 까지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과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여 받지 못한 분 중 요청 하시는 분에게는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잡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 치료, 상담, 정서 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시각 지대(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 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 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집결 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너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보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유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 대 상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줄기 캠페인 : 비정기회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12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12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길상사 창건 26주년 기념법회	12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지기도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전 1000일 기도 회향	12월 2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지장전 1000일 기도 입재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보름기도	12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